

배포

2026. 05. 20.(수) /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

한국토지주택공사(LH), 관악난곡 A2 공공시행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협약 체결

- 국내 첫 가로주택정비사업 공공 단독시행... 주민대표회의와 협력관계 구축
- 시공사 선정,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 후속 절차 속행. '28년 750호 착공 목표

- 한국토지주택공사(LH)는 관악난곡 A2 공공시행 가로주택정비사업 주민대표회의와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.
 - 관악난곡 A2 구역은 관악구 신림동 687-2번지 일대 29,306㎡ 규모로, 약 750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. 지난 1월 관리계획 승인·고시가 완료*됐으며, 이어서 지난 4월 LH가 공공시행자로 지정됐다. 가로주택정비사업 중 처음으로 공공이 단독으로 시행한다.
 - * 관악난곡 A2 구역은 지형, 사업성 문제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다 LH의 사업 면적 확대, 경사도 등 지형 극복을 위한 설계 등을 통해 사업성을 보완해 승인고시가 완료됨
 -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LH는 주민대표회의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, 오는 '28년 착공을 목표로 연내 시공사 선정, 내년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.
- 박권팔 관악난곡 A2구역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은 “LH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추진하는 만큼,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”라고 밝혔다.
- 박현근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장은 “관악난곡A2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최초로 공공에서 시행해 의미가 큰 지역”이라며 “남은 절차도 신속하게 추진해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와 지역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담당부서	수도권정비사업 특별본부	책임자	팀 장	박성수	(02-6400-5427)
		담당자	차 장	백희권	(02-6400-5428)